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보험업협회, FY08 자보시장 분석 결과 발표

□ 중국보험업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사업을 하는 중국 내 26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FY2008 자동차보험 경영실적 및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함.

- 전체 26개사 중에서 10개사 만이 이익을 냈으며, 그 중 중국인민보험공사(人保財險)와 핑안손보(平安財險)가 각각 20억 천만 위안, 4억 4천만 위안의 이익을 달성해 업계 1, 2위를 기록함.
- 손실을 기록한 16개사 중 두뽕손보(都邦財險)가 2억 1,900만 위안으로 가장 큰 손실을 냈으며, 중국생명손보(中國人壽財險)가 2억 1,400만 위안의 손실로 두 번째로 큰 손실을 기록함.
- 수입보험료 규모가 10억 위안이 넘는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12개사로, 이 중 7개사는 이익을 냈고 나머지 5개사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26개사 모두 영업이익(손실)에서 투자수익을 제외하면 손실 규모가 훨씬 커지거나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들이 투자수익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□ 작년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비용 절감 등의 자구책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남.

- 경기침체로 작년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 손보업계 빅 3인 중국인민보험공사, 핑안손보, 타이핑양손보(太平洋財險) 등은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모두 순이익을 달성함.
- 전문가들은 이들 회사들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사업비 관리에 성공한 것을 꼽고 있음.
- 중소보험회사들의 경우 수입보험료에서 사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 50%를 넘고 있는 반면, 상기 3사(중국인민보험공사가 32.7%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)는 40% 이내로 나타나 업계는 사업비 관리의 성패가 회사경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(21세기경제보도 7/1)